

2024 학년도 논술(AAT) 모의고사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인문계열)

[문제 1]

1.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

1-1. [문항해설] (가)에서는 장강명의 「알바생 자르기」라는 소설을, (나)에서는 소설에서 초점화자의 역할과 이에 따른 독자의 윤리적 읽기에 관한 글을 제시하였다. 1-1 문항에서는 「알바생 자르기」에서 초점화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하고 이 초점화자의 이동이 독자가 인물에게 갖는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읽도록 했다. 이 문항에 적절히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에서 초점의 이동을 분석적으로 읽어야 하고, 다음으로 초점의 이동에 따라 독자의 심리적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신의 읽기를 성찰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1-1. [예시답안] (가)에서 초점화자는 은영에서 헤미로 바뀐다. 은영이 초점화자일 때 독자는 은영의 입장에서 헤미를 바라봄으로써 헤미와의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는 반면, 헤미가 초점화자가 될 때 독자는 헤미의 입장에서 서술된 속사정을 알게 됨으로써 헤미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 (147자)

1-2. [문항해설] 1-2는 독서 과정에서 독자가 서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되고 이 신뢰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인물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메타적으로 읽도록 한 문항이다. 이 문항에 적절히 답하기 위해서는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헤미를 시선을 끌어들이므로 앞부분 은영에게 초점화된 서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게 됨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독자는 은영의 시선에 따라 갖게 된 헤미에 대한 판단을 재검토하게 되고 헤미가 처한 상황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윤리적 읽기를 수행하게 된다.

1-2. [예시답안] 은영에게 초점화된 서술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독자는 ㉠의 헤미의 말을 핑계로 받아들이고 헤미를 불성실한 인물로 판단한다. 반면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의 헤미에게 초점화된 서술을 통해 앞의 은영의 초점자 서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헤미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168자)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점화자의 이동을 맞게 쓰면 10점, 틀리면 0점 - 독자의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대한 서술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헤미와 멀었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맞게 쓰면 10점, 틀리면 0점 (2) 은영이 초점화자일 때 헤미가 대상화, 헤미가 초점화자일 때 헤미의 내면, 속사정이 드러남을 명시할 경우 10점, 그렇지 않을 경우 점수 차등 부여 - 답안 내용의 명확성과 맞춤법, 주술 호응 등의 문장 완성도에 따라 적절히 감점(0~5점) 	3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자의 신뢰성 여부에 따른 인물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달라짐을 적절히 기술 - 독자의 서술자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적절히 기술한 경우 20점, 인물의 신뢰도 여부를 기술한 경우는 10점만 부여 - ㉠과 ㉡을 대비하여 윤리적 판단의 달라짐을 명시한 경우 10점 - 답안 내용의 명확성과 맞춤법, 주술 호응 등의 문장 완성도에 따라 적절히 감점(0~5점) 	30

[문제 2]

1.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

2-1. [문항해설]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의 상황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는 정보불균형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고차 거래에서의 역선택과 정보불균형의 궁극적 폐해인 시장실패 상황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2-1. [예시답안]

- 결함이 있는 자동차인 경우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아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모르고 구매하는 상황
- 결함이 없는 자동차인 경우 판매자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이를 믿지 않아 필요한 자동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
- 궁극적으로 중고차 시장이 사라져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 (150자)

2-2. [문항해설] 제시문에서 역선택과 정보비대칭을 이해하고, 재무보고 과정에서 역선택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2-2. [예시답안] 역선택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정보가 부족한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재무보고 과정에서의 역선택은 경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주주(또는 외부정보이용자)가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실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상황, 기업의 실적이 높은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또는 외부정보이용자)가 믿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150자)

2-3. [문항해설] 재무보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무보고가 필요하며, 이에 자발적인 재무보고와 강제적인 재무보고가 있다. 대리인 관점에서 경영자는 주주와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재무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강제적인 재무보고가 필요하다. 역선택의 관점에서는 경영자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정보불균형이 발생하므로 강제적인 재무보고가 필요하다.

2-3. [예시답안] 강제규제의 필요성은 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재무제표를 작성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으므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재무보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영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이에 강제적인 재무보고가 필요하다.

역선택의 관점에서 경영자는 정보의 양을 적게 공시하여 외부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강제적인 재무보고가 필요하다. (150자)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세 가지 상황을 모두 적어야 정답 (20점) 셋 중 하나만 적으면 7점, 셋 중 두 개만 적으면 15점 그 외 0점 - 답안 내용의 명확성과 맞춤법, 주술 호응 등의 문장 완성도에 따라 적절히 감점(0~5점)	20

2-2	<p>주주(또는 외부정보이용자)와 경영자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역선택과 관련한 아래의 상황을 모두 서술해야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가 부진한 실적을 알리지 않아 역선택이 발생한 상황 - 경영자가 실적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믿지 않아 역선택이 발생한 상황 <p>위 상황 중 1개만 서술하는 경우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 내용의 명확성과 맞춤법, 주술 호응 등의 문장 완성도에 따라 적절히 감점(0~8점) 	20
2-3	<p>대리인 이론과 역선택을 이해하고 이들이 재무보고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재무보고와 비교하여 강제적 재무보고의 특성을 서술하는 경우 가점(0~6점) - 답안 내용의 명확성과 맞춤법, 주술 호응 등의 문장 완성도에 따라 적절히 감점(0~6점) 	20

[문제 3]

1.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

3-1.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도덕적 진술을 비도덕적 진술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입장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행동 A가 옳다”를 “행동 A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한다”로 이해하는데, 이 경우 “행동 A는 옳지만 A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는다”는 결국 “행동 A는 옳지만 옳지 않다”를 의미하는 자기모순적인 진술이 될 것이다.

3-1. [예시답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는다. (34자)

3-2. [문항해설] <보기>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맞고 틀림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도덕적인 옳고 그름은 많은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므로 이는 객관적인 참, 거짓이 있는 문제이다. 반면에 표현주의에 따르면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감정 표현의 문제이고 이에 참, 거짓이 적용될 수 없다.

3-2. [예시답안] ㉠은 부합하지 않는다.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증진시키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객관적으로 참이기 때문이다. ㉡은 부합한다.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마다 갖는 감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116자)

3-3. [문항해설] 주관주의와 표현주의는 모두 도덕적 진술을 감정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주관주의는 도덕적 진술이 발화자의 감정을 기술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경우 부정문 도덕적 진술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는 진술로 보면 되므로, 주관주의에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3. [예시답안] 적용되지 않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둑질을 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니다”는 “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둑질을 하는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5자)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A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한다”의 부정문으로 읽힐 수 있는 문장(“A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는다/못한다.” 등등)로 답변한 경우 20점 - “행복”과 “않는다”(“못한다”) 등의 부정어가 포함되나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가령, “A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3점에서 5점까지 감점 처리 - “A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한다.”라고 반대로 답변한 경우 5점 부여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0~5점).	20
3-2	㉠과 ㉡을 분리하여 각 10점으로 채점하고, 각각에 대해 정답과 이유를 각 5점으로 채점 - ㉠의 경우 부합하지 않음을 말하고, 어떤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맞고 틀림이 있음을 이유로 지적한 경우 10점 부여 - ㉡의 경우 부합함을 말하고, 감정 표현의 경우 객관적인 맞고 틀림이 없음을 이유로 지적한 경우 10점 부여 - 각 이유가 대해 정확하게 진술되지 못한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적절히 감점 - 위의 기본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 표현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0~5점).	20
3-3	㉠에 따르면 부정문은 “나는 어떤 행동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로 이해됨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의 문제가 주관주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 20점 -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옳으나 그 근거가 잘못된 경우, 그 논리적 연결성을 파악하여 최대 10점까지 부여 - 주관주의를 표현주의와 혼동하여 답안을 작성한 경우 최대 5점까지 부여 - 답안 내용의 명확성과 맞춤법, 주술 호응 등의 문장 완성도에 따라 적절히 감점(0~5점)	20

[문제 4]

1.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

4-1. [문항해설] 이 문항은 텍스트 분석 능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제시문 (가), (나) 주장의 차이를 예술이 사회관계 안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1. [예시답안] (가)는 예술에 대한 취향이 집단 간 경계를 강화하고 계급을 재생산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서로 다른 개인들 간에 수평적 소통, 상호 공감과 신뢰 관계가 강화되어 민주주의가 증진된다고 본다. (117자)

4-2. [문항해설] 예술에 대한 취향, 문화적 선호를 기초로 계급 간 구별짓기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와 <보기>의 조사 결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별짓기가 상층계급은 고급문화를 좋아하는 것으로, 하층계급은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반면, <보기>의 조사 결과는 예술 형식에 따른 구별짓기가 아니라 상층계급이 하층계급에 비해 고급문화에서 대중문화까지 문화 선호의 폭이 더 넓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구별짓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기>와 (가) 주장 사이의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4-2. [예시답안] ㉔와 (가) 모두 예술적 취향에 따른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의 구별짓기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지만, (가)는 각 계급마다 선호하는 예술 형식이 다른 것을 구별짓기로 설명하는 반면, ㉔는 상층계급은 문화 선호의 폭이 하층계급보다 넓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40자)

4-3. [문항해설] 이 문항은 제시문 (나)의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나아가 예술가와 천재의 관계 및 예술가의 내재적 자질을 밝히고 있는 <보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나)의 관점과 비교해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4-3. [예시답안] <보기>에서 예술가는 교육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소수 천재로 이해되는 반면, (나)에서는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예술을 생산하는 모든 사람을 예술가로 보고 있다. (102자)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p>▶ 예술의 사회관계 속에서의 기능에 대한 (가), (나) 관점의 핵심적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p> <p>- (가)에서는 계급 간 경계 강화와 계급 재생산에 대한 서술이 모두 포함되어야 정답. - 아무런 설명 없이, '부정적이다/긍정적이다' 식의 서술만 있는 경우, 0점. - 위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내용, 표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4-2	<p>▶ 예술적 취향과 계급 간 구별짓기에 대해 <보기>의 조사 결과와 (가) 주장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정확히 비교하여 서술해야 함.</p> <p>-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서술했을 경우, 10점 - 위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내용, 표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4-3	<p>▶ 생활예술에 대한 (나)의 설명에 기초하여 예술가에 대한 관점을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보기>의 예술가에 대한 관점과 대비시켜 서술해야 함.</p> <p>- (나)의 관점과는 무관하게 <보기>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베껴 서술하는 경우, 크게 감점함. - 마찬가지로, (나)와 <보기> 중 하나만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이와 다르게 본다' 식으로 서술할 경우, 크게 감점함. - 위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내용, 표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감점함.</p>	20

[문제 5]

5.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

5-1. [문항해설] 법적인 용어를 사회 통념보다 넓게 정의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는 법적 소비자 개념과 관념적 소비자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어떤 점에서 긍정적이고 어떤 점에서 부정적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5-1. [예시답안] 소비자 개념을 넓게 정의할 경우 소비자 범위가 넓어져서 소비자로서 보호하거나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기 쉬워지는 반면에, 소비자에 관한 규범 현실과 평균인의 관념간의 이질성이 커져서 법을 잘 수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124자)

5-2. [문항해설] 제시문의 본문과 문제의 보기를 연계하여 재화의 여러 유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였는지를 묻는 문제임. 본문에서는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가 등장하고, <보기>에는 소비자, 최종재,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라는 개념이 등장함.

5-2. [예시답안] 답지에는 이들을 상호 연결하여 서술하였는데, ‘ㄷ’만 틀린 서술임. 소비재를 구입한 대규모 농장이라도 비내구 소비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임.

5-3. [문항해설] 본문에서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소비자를 정의하는 방식이 연쇄적으로 원칙, 예외, 예외의 예외, 그 예외의 예외의 예외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임. 구도는 미리 알려주되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추론할 수 있는지가 평가의 기준임.

5-3. [예시답안] 소비자기본법상 ①의 소비자개념을 원칙으로 하여, ②는 소비생활이 아닌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이고, ③은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의 용도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안 되므로 그 예외이고, ④는 그런 용도라도 농어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면 소비자가 되므로 다시 그 예외가 된다. (181자)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	<p>법적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의 두 가지 측면을 상호 대비하여 서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채점함(10점까지 부여)</p> <p>법적 용어 정의방식의 효과가 소비자 개념 정의에 상반되어 나타나는지를 적절히 적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채점함(10점까지 부여)</p> <p>- 논지의 대비적 구도를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단순히 본문을 재인용한 경우, 글자수 150자를 초과한 경우에는 감점함 (1~5점 사이에서 감점)</p>	20
5-2	<p>답지에서 옳은 서술은 ㄱ, ㄴ, ㄹ, ㄴ임.</p> <p>네 개의 옳은 서술마다 5점씩 배점하여 맞춘 수 대로 곱하여 점수를 부여함</p> <p>- 예컨대 ㄱ, ㄴ, ㄴ가 옳다고 한 경우, ㄱ, ㄴ, ㄷ, ㄴ를 옳다고 한 경우는 모두 옳은 서술을 3개씩 골랐으므로 15점을 부과하고, 틀린 서술을 적은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음.</p> <p>단, 만일 다섯 개 지문 모두를 옳다고 한 경우에는 3점을 감점하여 17점을 부여함</p>	20
5-3	<p>원칙과 예외의 구도가 소비생활-생산활동에 있다는 점을 서술 (5점까지 부여)</p> <p>예외와 그 예외의 구도가 최종재-원재료, 중간재, 자본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서술 (5점까지 부여)</p> <p>그 예외에 대한 새로운 예외가 농어업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서술 (5점까지 부여)</p> <p>논지가 연쇄적이고 대립적 구도로 전개되었는지,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구분하는 핵심적 기준을 포착했는지, 글자수 200자를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가점함(1~5점 사이)</p>	20

[문제 6]

1.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

이 문항은 선거제도와 정부형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갑국의 선거제도가 단순다수제라 것과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변경되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제시문은 5년전 선거 결과와 작년의 선거 결과를 비교 제시하고 있다. 작년 선거 결과는 어떠한 정당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과 우파(극우파 7%, 우파 30%, 중도우파 18%)가 과반 이상을 얻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6-1. [문항해설] 제시문 중에서 옳은 정답은 갑 국의 선거 결과 우파 연합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과 의석의 7%(21석)를 얻은 극우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6-1 [예시답안] (ㄱ, ㄹ)

6-2. [문항해설] 제시된 선거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제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판단 근거 그리고 대통령제하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6-2. [예시답안] 5년 전 갑 국의 선거 결과 중도좌파 대통령의 집권당은 의석의 35%밖에 얻지 못했고, 중도우파(25%)와 연합하지 못하면 소수당 대통령으로 전락한다. 정국의 불안정이 예상된다. 이 경우 소수당 대통령은 다수파 야당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6-3 [문항 해설] 갑국이 의원 내각제로 정부형태를 변경한 후 치러진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내각책임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러한 판단의 근거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묻는 문제다.

6-3. [예시답안] 선거 결과 5개 정당이 의석을 얻었지만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정국의 불안정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우파(7%)부터 우파(30%), 중도 우파(18%)를 포괄하는 우파 연립정부가 출현해야 한다.

2.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제시문을 읽고 옳은 답안을 모두 고르는 문항 모두 고르는 문항이기 때문에 ㄱ,과 ㄹ 하나만 고르더라도 부분 점수 없음	20

<p>6-2</p>	<p>개헌 전 대통령제 였던 갑국의 선거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이 격화되고 정국의 불안이 예상된다. 여소야대 소수당 대통령(35% 의석)으로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다.</p> <p>선거 결과 다당제로 집권당(라 정당)이 의석의 과반을 얻지 못해서====>5점 정국의 불안 또는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이 예상된다====> 5점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다====>5점</p> <p>핵심적 내용을 포함하는 유사한 표현을 진술했으면 점수 부여하고 재량에 따라서 부분 점수 부여. 예를들어 순수 대통령제에서 다당제의 출현으로 집권당은 타 정당과 연합을 해야 한다와 같은 표현도 해당 점수 부여,</p>	<p>15</p>
<p>6-3</p>	<p>갑국의 최근 선거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지 못한 다당제(5당 체제)가 출현했다. 의회 중심제로 변경한 갑국에서 과반 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워 정국의 불안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파 연합정부(극우파. 우파, 중도우파)의 출현이 필요하다.</p> <p>- 의회 중심제에서 다당제의 출현으로 과반 정부의 구성이 어렵다====>5점 이에 따라서 정국의 불안이 예상된다====>5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파 연합 정부(55%)의 출현이 필요하다====>5점</p> <p>각 항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유사한 진술을 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재량에 따라서 부분 점수 부여.</p>	<p>15</p>